

독서교육 · 학교도서관 활성화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 연계 '온책읽기 단체 대출' 등 도서관 지원 정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분청 문예제전장과· 창의인재교육과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등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 간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협의회를 개최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학교 독서활동과 도서관시스템 연계 등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다양한 학교독서교육 사업을 개발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학교 단위로 동일한 책을 읽고 토론하며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온책읽기 단체대출을 6개 교육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도교육청이 추천한 100권의

독서를 교육과 연계해 활용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는 공간 및 예산제약으로 학교도서관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온책읽기 독서를 교육문화회관-학교도서관 간 상호대차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각 회관별 학교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그림책 출판, 작가와의 만남, 독서·인문소양 교실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시(詩) 페스티벌, 인문학으로의 초대, 독서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작년 11월부터 분청 문예제전장과· 창의인재교육과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등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 간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사진은 도내 어느 학교도서관 내부 모습이다.

론 한마당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서기 문예제전장과장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너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7공수특전여단 국방학과 운영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제7공수특전여단(여단장 김종탁 준장)이 5일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학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제7공수특전여단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김종탁 여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제7공수특전여단 내 군 계약학과인 국방학과를 설치하고, 부대의 추천을 받은 20명의 부사관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강의는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진행되며, 소정의 학위과정을 마친 부사관에게는 군사학사의 학위가 수여될 예정이다.

남천현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군 교류 활성화는 물론 부사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양 기관이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탁 여단장은 "군 생활을 하면서 간부들의 자기 계발과 학위취득을 위한 좋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 5일 자치도 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법률 지원 확대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위촉식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 5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위촉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로 매칭·운영된다. 지역별로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 등이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에 따른 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 시범운영을 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더불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재학생 6명, 싱가포르 호텔 취업 성공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싱가포르 현지 호텔을 방문, 취업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재학생 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22~26일 싱가포르 콘래드 오차드 호텔, 콘래드 센테니얼 호텔, 리츠칼튼 호텔, 웨라톤 타워, 크라운 플라자 호텔 등 현지 호텔을 직접 찾아 취업 면접을 진행, 취업을 확정했다.

학과 교수진이 영어로 진행된 1차 면접을 통해 8명을 선발, 외국인 교수를 포함한 학과의 모든 교수와 수석 차례에 걸친 1대 1 영어면접 훈련과 현장 업무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해외 현장에서는 현지 호텔 인사부의 이력서 검증을 거쳐 부서장 면접과 인사부 면접을 차례로 통과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한편 이번 해외 취업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인 학과 특성화 사업과 링크 3.0 사업, 전주대 일자리플러스 스타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5일 전주교육대학교 이영노홀에서 2023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교대,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 포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5일 교내 이영노홀에서 2023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박병춘 총장과 주요 보직자, 교직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오전 1부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 포럼 안내와 차년도 재정지원사업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2부에서는 교육환경 분석을 통한 교육혁신 방안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매뉴얼 제작 연구

등 지난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각 부서 사업담당자의 부서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성과 포럼은 그동안 수행해 온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부서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설 연휴 교육시설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시설 및 학교 606곳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방 대상은 분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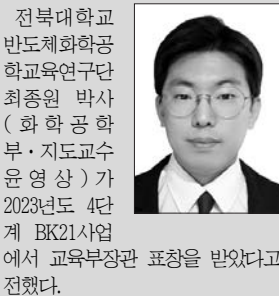
다만, 학교(기관)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 관리 인력이 없어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옆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하고, 학교 출입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주민들이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친환경 습식제련 금속자원 재활용 공정 연구 '결실'

전북대 최종원 박사, 4단계 BK21 교육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반도체화학공학교육연구단 최종원 박사(화학공학부·지도교수 윤영상)가 2023년도 4단계 BK21사업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성과를 낸 인재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이 상의 수상자로 총 579개 교육연구단의 석·박사 참여인력 1만9,000여명 중 29명만이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최 박사는 전북대 대학원에서 2016년 BK21플러스 및 4단계 BK21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습식제련을 통한 다양한 순환자원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고 이를 활용하는 금속 자원 재활용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의 신규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국제 저명 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상위 3.5%, IF 13.6)를 포함해 총 30편(주저자 7편, 공동저자 23편)의 논문 게재와 2건의 특허등록, 그리고 1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했다.

최 박사는 학위 취득 후 벨기에 KU Leuven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종원 박사는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실험 설계부터 논문 작성, 투고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배워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기본 소양을 제대로 갖추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하는 배터리와 다양한 순환자원 재활용 연구를 통해 앞으로 국가 핵심 에너지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분야별 전문가·퇴직자·유학생 대상

교육기부단 23일까지 모집

심의회 거쳐 개인 60명·유학생 40명 내외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개인 및 유학생 교육기부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기부는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에서는 개인 기부단과 유학생 기부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기부단은 문화·문학·음악·미술·체육·인성·과학·공학·외국어·방송연륜·의료·경제·미용·공공·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가나 퇴직교원,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또 유학생 기부단은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및 자국 문화 홍보를 희망하는 유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부단은 기관추천과 개인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관추천자는 공문 제출, 개인은 도교육청 교육협력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kh3007@jbedu.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인 60명, 유학생 40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선정된 교육기부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유학생 교육기부단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국의 문화와 전통, 언어 등을 소개한다. 임경진 과장은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 직업·체험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행정연구회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13일까지 공모... 25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연구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는 자율적인 연구회 형태로 운영, 실천적 과제 중심의 연구를 통해 교육현장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교직원 자치·복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30팀을 운영했고, 올해는 지정과제 10팀, 자율과제

25팀 등 총 35팀으로 확대·운영된다. 특히 자율과제 행정연구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15명 내외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 신청서·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오는 13일까지 K-에듀파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되며, 선정된 행정연구회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지정과제로는 자치도교육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과제로 선정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의회와 현안 업무 공유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이 5일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와 현안업무 공유 등을 위한 신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갑질근 새해를 맞아 지역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부안교육과 관련된 이해와 소통으로 부안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발맞추어 작년과 달라진 2024년 부안교육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을 공유하며, (가칭) 부안미래교육센터 조성계획안(창의예술미래공간 신설,

발명교육센터 이전, 청소년 전용 수영장 신설)과 부안군 옛기숙사를 활용한 교육지원 관사 확충계획(안), 교육발전지구조성계획(안)에 대한 설명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장기선 교육장은 "바쁜 군의정 업무 중에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실력과 바른인성을 키우는 부안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